

이보다 독할 순 없다...박연진·원상아 최악의 ‘독종’ 넘버1

〈더 글로리〉

〈작은 아씨들〉

‘악녀 캐릭터’ 오디션해 보니



악녀들이 뜨고 있다. ‘송혜교의 복수극’ 넷플릭스 ‘더 글로리’가 파트2 공개 후 2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TV 부문 시청 시간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속 악랄한 캐릭터들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상에 이보다 더 악독할 수 없다는 듯 박연진 역을 제대로 소화한 임지연은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차트(굿데이터 퍼레이션)에서 주연한 송혜교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더 글로리’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악녀가 대거 등장한 것처럼 표독한 모습만 강조하던 과거 캐릭터와 달리 최근 드라마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눈길을 끈다. 단순히 비난할 수 없는 악녀부터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희대의 악녀까지 최근 드라마에서 돋보였던 색다른 악녀를 되돌아봤다. 극중 선보였던 명대사는 ‘담’이다.



박연진 역 임지연

● ‘더 글로리’ 박연진(임지연)
독종 지수: ★★★★★
동정 지수: ☆
특기: 집단 따돌림, 폭행, 외도
최후: 비참한 교도소 수감생활

10대부터 유구한 악행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았다.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고데기로 지지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자신보다 가졌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가 어른이라고 해도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는다. 사고 치면 돈으로 해결하고, 검은 세력과 결탁하기도 한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는 이야기다. 직장 내 괴롭힘도 당당하다. 외도?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10대 때 저지른 악행을 숨기기 위해 오랜 친구들도 가볍게 버린다. 뺏속까지 ‘나쁜 X’이라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손민수 역 윤지원

● ‘치즈인더트랩’ 손민수(윤지원)
독종 지수: ★
동정 지수: ★★
특기: 따라하기, 우기기
최후: 도피 휴학

협박, 사기, 심지어 살인까지 각종 범죄를 일삼는 다른 악녀들과 감히 비교할 순 없다. 하지만 정말 현실에, 바로 내 곁에 있을 법한 인물이기에 더욱 섬뜩하다. 홍설(김고은)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손민수는 최고의 ‘발암’ 캐릭터로 꼽힌다. 아무진 홍설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손민수의 ‘홍설 흉내내기’는 점점 정도를 넘어서며 뺏목을 잡게 한다. 옷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건 물론 홍설의 리포트까지 그대로 가져다 쓰며 주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강력한 존재감으로 ‘손민수’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의 신조어로 만들었다. 동경하는 스타의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에게 ‘손민수하다’라는 표현이 따라 붙는다.



이유미·이안나 역 수지

● ‘안나’ 이유미·이안나(수지)
독종 지수: ★★★★★
동정 지수: ★★★★★
특기: 거짓말, 학력 위조, 신분 도용
최후: 캐나다로 도피

이유미는 쉽게 미워할 수 없는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악녀다. 대학에 합격한 적도 없으면서 부모를 속여 등록금을 받아 유학을 가려한다. 자신을 철썩 같이 믿는 선배를 속여 대학생 행세도 했다. 급기야 학력, 집안, 이름까지 위조해 다른 삶을 산다. 가짜의 삶으로 얻은 부와 명성으로 결혼한 이유미는 점점 악녀가 된다. 고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했지만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다. 자신이 가진 초라한 면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 이들이라면 한국을 떠나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응원하게 될 것이다.



이안나 역 이유미

● ‘지금 우리 학교는’ 이안나(이유미)
독종 지수: ★★★★★
동정 지수: ★★★★★
특기: 음해, 차별, 남 탓
최후: 좀비에게 목을 물리고 사망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공주병 말기 고교생. 동급생 경수를 ‘기초 생활수급자’의 졸업말인 ‘기생수 새끼’라 부르고, 가난한 집안의 친구들에게 툴하면 “너 따위야”라고 욕박지르는 게 일상이다. 기고만강하고 이기적인 본성은 학교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재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좀비 떼가 몰려올 때마다 “어떻게 좀 해봐!”라며 친구들을 방패막이 삼기 바쁘다.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급기야 매사에 술선수범하던 경수를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안하무인의 최고봉.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까지 뒹뚱 잡게 만든 역대급 민폐 캐릭터이지만, 마지막엔 반성하고 친구들을 찾아 나서서 최후를 맞으니 동정의 여지는 있다.



여다경 역 한소희

● ‘부부의 세계’ 여다경(한소희)
독종 지수: ★★
동정 지수: ★★★★★
특기: 미모 발산, 유혹, 사랑에 눈멀기
최후: 남의 남편 뺏었다가 결국 이혼

이렇게 고혹적이고 아름다운 악녀가 또 있을까. 등장만으로 주변과 시청자를 속속이게 만든 미모의 소유자다. 심지어 지역 유지의 외동딸로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자랐다. 모든 게 완벽한 그는 하필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긴 유부남 이태오(박해준)에게 빠져 ‘상간

녀’가 됐다. 자신의 사랑이 불륜이 아닌 운명이라 착각한 나머지 이태오의 아내 지선우(김희애)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밝히기까지 한다. 그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손에 넣은 이태오와 백년해로할 거라 믿었으니 어쩌면 순진했음지도. 결국 이태오가 다시 지선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안 후 뼈저리게 깨닫는다.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원상아 역 엄지원

● ‘작은 아씨들’ 원상아(엄지원)
독종 지수: ★★★★★
동정 지수: ★★
특기: 연기, 독살, 사체유기
최후: 염산 우물에 빠져 증발

처음엔 국회의원 남편(엄기준) 옆에서 해맑게 사치할 줄이나 아는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치밀한 연기였다는 것이 반전. 사실은 주인공 오인주(김고은)를 700억 비자금 사건에 연루시키고, 그의 자매들을 위협에 몰아넣은 ‘악의 축’이었다. 심지어 오인주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작정한 이유가 “가난한 주제에 희망차 보이는 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라니. 자신의 거대한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살인 정도는 우습게 여길 만큼 악독하다. 자신의 실수로 어머니가 사망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악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스스로 준비한 염산 용탕이에서 온 몸이 타들어가면서 마침내 찢깁을 받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990년대 ‘연적 복수녀’서 2000년대 ‘욕망의 화신’으로

드라마속 ‘악녀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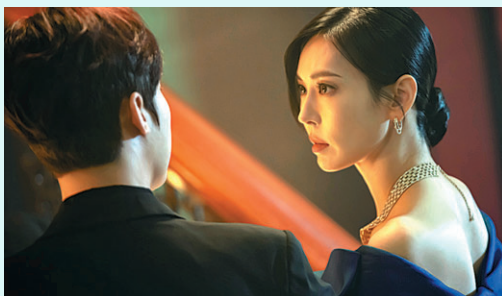
‘청춘의 덫’ 심은하-장서희 국민미남
최근엔 ‘펜트하우스’ 김소연에 열광

시대에 따라 드라마 속 악녀들도 변하고 있다.

1970~80년대 드라마에서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캐릭터였다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여주인공의 연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역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브의 모든 것’ 김소연, ‘토마토’ 김지영, ‘미스터Q’ 송윤아 등은 상대역인 김희선을 괴롭히며 극적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인기를 끌었다. ‘청춘의 덫’의 심은하나 ‘인어아가씨’, ‘아내의 유혹’ 장서희 등 복수를 위해 악녀가 되는 서사가 주로 그려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악녀는 직업적 성



주제적 ‘악녀’가 뜬다. ‘청춘의 덫’의 심은하부터 ‘펜트하우스’의 김소연(위부터) 때까지 시대가 바뀌면서 캐릭터도 확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MBC·SBS

취나 권력, 명예 등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주제적인 캐릭터로 확장됐다.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 ‘펜트하우스’ 김소

연 등이 악녀로 인기를 끌었던 것과 같다.

공회정 드라마평론가는 22일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중요시하는 주제적인 여성이 주목받으면서 악녀 캐릭터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며 “시청자들도 악녀들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변했다. 착한 캐릭터보다 강렬한 악녀가 인기를 끌면서 이미지나 광고 등을 의식해 과거 악녀 캐릭터를 기피하던 배우들까지 선호하는 추세다.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을 연기한 김소연은 드라마 2000년 ‘이브의 모든 것’에서 악역을 연기했을 때와 확실히 대중의 달라진 운도 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브의 모든 것’ 때는 역할로 인해 덩달아 배우 김소연까지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청자들이 캐릭터와 배우를 분리해서 봐주신다”며 “천서진을 연기하면서 ‘이제 광고는 다 날아가겠구나’ 싶었는데 천서진 이후 광고를 10개 넘게 찍었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왜 없는 것들은 권선징악만 있는 줄 알까?”

-더 글로리2

희자된 악녀들의 ‘독한’ 명대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꼭 이유가 있어야 나쁜 짓을 하느냐’며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하다. 천하의 ‘나쁜 X’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도 하나같이 송곳처럼 날카로우며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판다. 다 같이 모여 정기적으로 ‘피겨쇼’(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말을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박연진(‘더 글로리’ 파트2 중에서)

→문동이 고교시절 동창인 박연진에게 학폭 증거자료를 내밀며 자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 “난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해. 자기 집에서 일일이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 원상아(‘작은 아씨들’ 중에서)
→집안의 운전사 아들인 남편까지 ‘머슴’이라고 부르며 천대

●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만약 안되는 게 있다면 혹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자?” 이현주(‘안나’ 중에서)
→돈도 많고 다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현주가 신분, 학력을 위조해 살고 있는 안나에게 3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